

與, 코로나 확진자 500명대에 긴장...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지난 3월 이후 첫 확진자 500명 넘어

이낙연 “방역태세 강화 조치 불가피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서자 확산세가 급속도로 커질 것을 우려하며 방역에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 결과를 공유

했다.

그는 “심각한 국면이다. 고통스럽지만 방역태세 강화 같은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총력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국민 전수조사 실시 의견도 제시됐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록 음성이지만 저도 자가격리를 당해보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말처럼 국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필요한 법 제

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로 일주일여 채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명목으로 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조 6000억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

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사회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더 이상 예고 아닌 현실이 됐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

다.

이어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자영업자에게 따뜻한 돈으로 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야당의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대한민국 미래 종착점을 가까워진다는 입장이라면 정쟁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中왕이 외교부장 “시진핑 방한, 여건 성숙되면 성사”

“방역, 경제·무역, 한반도 평화, 다주주의·자유무역 협력”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해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여건이 성숙되자마자 방문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한국 국민 방문을 따뜻하게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 측이 중한 관계에 대

한 높은 중시, 강한 우호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왕이 부장은 “성숙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돼야 방한이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의 방한을 미중 경쟁 구도 속 미국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서는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190여개 나라가 있다”며

“이 나라는 모두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다. 이 중에서 중한도 포함돼 있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학자처럼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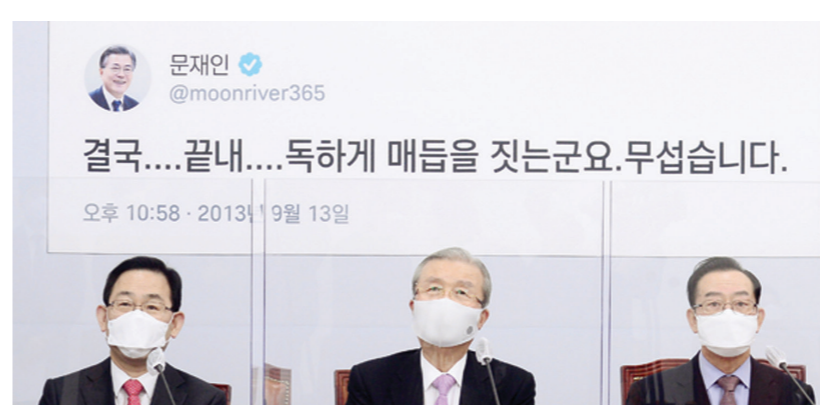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 양측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역 협력, 경제 무역 협력,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한 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중한 외에 국제 및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만 이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럽, 중동도 있다”며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다. 중한 양국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전방위적으로 조율,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면 회담 시간이 부족한 탓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인 “秋·尹 국정조사 동시”

하태경 “윤석열 나와도 불리할 것 없어...추미애에 이력 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자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비위 활동만 국정조사한다고 해도 괜찮다”며 조건 없이 민주당의 제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여당이 윤 총장에 한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편파적인 조사는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 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분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이력이 나왔다. 한 번 더 불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미 이낙연 대표가 선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지지율 43.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율을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중 잠정 집계(23일~25일)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43.4%(매우 좋음 23.0%,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내린 52.6%(매우 잘못함 38.2%, 잘못하는 편 14.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0%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9.2%포인트로, 전주(11월 3주차 주중 집계) 10.3%포인트보다는 간격이 소폭 좁혀졌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 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수도권 등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조치가 이뤄진 상황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등을 명령한 것에 대한 영향은 이번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 | |
|-------------------------------|-------------------------------|
| 기사제보 (062) 222-2580 |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